



오늘의 말씀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_ 시편 19:8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 신년 특집 | 4 향존직 선거 | 8-9 청년숲 소식 |
| 3 현충일 특집 - 기독교인의 평화 | 6-7 청소년숲 소식 | 11 피택자 소개 |



오늘 우리가 행한 작은 평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명도 평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평화는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 창조하신 환경과의 평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피로 회복' 헌혈 캠페인도 우리가 행한 작은 평화입니다. >3면

함글함글

존재를 나누는 것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즐함울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즐함울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나눠야 빛나는 가치

가끔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한다. 요즘 아이들과 자주하는 보드게임은 ‘루트’라는 카드게임이다. 금화가 그려져 있는 상선카드와 해골이 그려져 있는 해적선카드를 이용해서 내 상선카드는 지키고 다른 상선카드는 가지고 오는 게임이다. 누군가가 상선카드를 내놓으면 그 상선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해적선카드를 내놓고 카드에 그려진 해골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그 상선카드를 획득하는 것이다. 게임이 종료되면 자기가 획득한 상선카드의 금화를 합해서 가장 많은 금화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내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상선카드는 게임이 종료된 후 금화의 개수를 합할 때 제외된다. 그런데 8살 둘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선카드를 절대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는 상선카드만 획득해간다. 때로는 둘째가 상선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만 있어서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둘째에게 왜 상선카드를 내놓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금화 갯수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낸 상선카드만 획득하겠단다.

다른 사람의 상선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내놓은 카드에 해골 수가 많은 해적선카드를 내서 자기가 낸 상선카드를 획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주고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니 이제야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이 무조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둘째를 보며 내 삶에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았다.

굳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 값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식사비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유행이 지난 옷이 누군가에게는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내용이 생각난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젊을 때 데리고 들어온 둘째 부인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둘째 부인이 병에 걸리자 자신의 장기를 나눠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고 부인은 치매에 걸리게 된다. 둘째 부인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치매에 걸린 부인이 둘째 부인에게 누구신데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으니 둘째 부인은 예전에 부인께서 소중한 것을 나눠줘서 자기가 지금 살아 있는 거라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런다고 답했다. 그러자 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 “그게 뭘지 모르지만 내가 마침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눠줬겠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줄 수도 없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 참 다행이었네요.”

아이들과 함께한 게임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어차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할까?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다.

책 속의 명문장

부모 면허



박인경 지음, 규장, 2021

-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가 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 부모 자신과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부모인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 우리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염려하다가 세상에 매여버린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며 ‘동역과 상속의 삶’을 살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다.
-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에 주님의 귀히 여기심이 흘러갈 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난다. 부모는 주님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알아가려면 먼저 자녀 곁에 ‘머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이다.
-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부모라는 다리를 건너 자녀에게 가고, 그 다리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난다.
- 자녀를 위해 부모는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고, 그래야 한다.
- 자녀는 따뜻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 부모라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부모는 배움을 통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녀와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정에 큰일이 일어나거나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어떻게 해야 할지 동분서주하지 말고, 가정의 리더로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익혀야 한다.
-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부모가 가르쳐준 만큼, 삶으로 보여준 만큼, 전해준 만큼 자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자신’이다. 부모가 소유한 것(having)과 해줄 수 있는 것(doing)은 부모 자신(being)만큼 중요하지 않다.
- 자녀의 눈에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해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과 행복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려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짜야 한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공교육인 학교 교육을 최대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예배드리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말씀 묵상하는 부모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유산이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가정은 교회이다. 코로나 시대에 꼭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다.
- 부모는 이 땅에 내 자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현충일 특집
기독교인의 평화

“평화,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

나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발견되고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누구와 무엇과 화해해야 하며,
평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다.

‘평화’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나 평화를 갈망해왔다. 누구도 평화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개념들은 각기 다르다. 우리는 어떠한 때 ‘평화롭다’라고 정의 내리는가? 누군가에게는 물리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방해나 파괴가 없는 심리적 안정이 평화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평화의 시대라 불리었던 시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평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역사는 다르게 평가된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라 불리었던 시대는 정말로 평화로웠을까? 우리는 각자 어떠한 평화를 꿈꾸는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운동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다. 첫 번째는 무장 저항 평화운동이며, 두 번째는 비폭력 저항 평화운동, 세 번째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다. 무장 저항 평화운동이란 평화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불사하는 것을 말하며, 비폭력 저항 평화운동이란 평화를 위해 무기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란 무기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 또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영화 ‘미션’에서 평화를 다르게 대하는 두 사람을 만난다. 예수회 소속 가브리엘 신부는 이과수 폭포가 아름다운 남미 오지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가브리엘 신부는 아주 잔혹한 노예상 로드리고 멘도자를 변화시키고, 그와 함께 과라니 부족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과라니 부족을 정복하고자 했던 포르투갈 군대가 들이닥치게 되고, 로드리고 멘도자는 이에 맞서 무력을 사용하여 마을을 지키고자 한다. 반면 가브리엘 신부는 포르투갈 군대의 위협에도 무기와 폭력을 선택하지 않고, 무저항의 자세로 사랑과 평화를 보여준다. 똑같은 폭력에 맞서 이들이 보여준 상이한 태도는, 평화에 대한 다른 이해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평화’의 의미

성서 안에서의 평화

평화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는 샬롬, 신약성서에서는 에이레네로 기록되어 있다. 평화의 개념은 성서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구약성서에서 샬롬은 237회, 신약성서에서 에이레네는 91회나 등장할 만큼 성서는 평화에 관심이 많다.

구약성서의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다. 본래의 것이 파괴되지 않은, 창조된 피조물 그 자체로서의 온전함, 충만함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도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죄의 침투로 우리는 평화의 상태를 상실했다. 죄로 인해 투영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화목제를 받으셨지만, 이것으로 파괴되어버린 평화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었다.

신약성서에 이르러 구약성서의 상태로서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관계 안에서의 평화로 확장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 땅에 참 평화를 선포하신다. 이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충돌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평화였다. 이 평화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차별과 배제 없이 공평하게 임하는 평화였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무력과 힘으로 가능했던 로마의 평화의 시대, Pax Romana의 허구와 모순을 폭로하셨다. 예수님은 무력과 힘으로 가능했던 기존의 지배구조를 거부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알려주셨다.

관계 안에서의 평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란 무력 충돌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막연히 먼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화로 물든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과의 평화, 개인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인 환경과의 평화라는 삶의 네 가지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는 일상적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 관계의 영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인 하나님과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눅 2:14).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만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에게 개인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가 앞으로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평화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내면적인 평화인 개인과의 평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환경과의 평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떠한 평화도 각자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평화의 영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전 영역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지닌 본래의 뜻인 온전함, 충만함, 만족함이라는 샬롬의 의미는 충족된다.

일상 : 평화를 위한 화해의 길

평화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양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깨어지고 파괴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 환경과 화해함으로 적극적인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 나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발견되고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누구와 무엇과 화해해야 하며, 평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다.

서예림 목사

장로 2, 안수집사 19, 권사 18 피택

2020년 가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위해 연기되었던 2020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지난 5월 16일과 23일에 걸쳐 무사히 시행되었다.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항존직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예년과 달리 정신학원 건물이 아닌 교회건물 지하층을 활용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을 설계했다. 또한 한 성도가 기증한 손 소독제가 투표를 마친 성도에게 뜻 깊은 선물로 제공되었다.

16일의 1차 투표에서는 1,001명(유효표 999), 23일의 2차 투표에서는 923명(유효표 919)이 투표했으며, 장로 2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18명이 피택되었다. 5월 29일부터 시작된 피택자 교육을 이수한 피택자는 11월 14일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 명단 11면

함글함글

피택자 교육 과정

회차	일시	강의 내용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5/29	오리엔테이션
2	6/5	제1강: 피택자의 자기진단 및 각오와 다짐
3	6/12	큐티 나눔과 실제 (1)
4	6/19	제2강: 피택자의 상(태도를 중심으로)
5	6/26	제3강: 리더는 만들어진다 / 1차 독서과제제출
6	7/3	큐티 나눔과 실제 (2)
8	7/10	제4강: 리더의 팀웍
	7/17-8/28	방학
9	9/4	큐티 나눔과 실제 (3) / 2차 독서과제제출
10	9/11	임직자와의 만남
11	9/18	제5강: 느헤미야의 리더십 (1)
12	9/25	큐티 나눔과 실제 (4)
13	10/2	제6강: 느헤미야의 리더십 (2)
14	10/16	큐티 나눔과 실제 (5) / 3차 독서과제제출
15	10/30	제7강: 릭 워렌의 리더십
16	11/6	큐티 나눔과 실제 (6)
17	11/12-13	제8강: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 4차 독서과제, 성경읽기표 제출 및 수련회
	11/14	안수식

실습교육 (자기점검표)

- 성경통독(1독), 매일큐티(주님과함께), 새벽기도(장로 : 주 3회이상, 안수집사및권사 : 주 2회이상)
- 독서보고서
 - 1차도서 :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서승동, 예수전도단)
 - 2차도서 : 리더십의 법칙 2.0 (존 맥스웰, 비전과 리더십)
 - 3차도서 : 예수의 길 (헨리 나우웬, 두란노)
 - 4차도서 : 미정 / 추후 공지
- 생활과제

2020년 항존직 선거를 마치며

2021년 5월 16일(주일), 모두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2020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선거는 시작 시점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역시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렵사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종직자 추천 이후로부터 순연된 모든 과정들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위해 응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선거관리위원분들, 선거팀의 도움으로 당회 공천까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렵사리 준비된 공동의회 선거가 시행되는 날에는 하늘에서 원망스런 비가 잔뜩 내렸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도 투표장 좌석을 충분히 마련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선거장에 입장하는 것과 기표 후 투표 및 퇴장까지의 모든 동선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하였는데, 비는 정말이지 하나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교회에 주차 문제가 쉽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저희 선거관리위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1,001분의 성도님들께서 1차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그중 수거된 999표 중 각 범주별 유효표를 계산하여 장로 1명, 안수집사 13명, 권사 10명이 피택 되신 것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였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선거 다음 주일(5/23) 열린 2차 선거도 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923명이 참석하여 919표가 수거되었고, 각 범주별 유효표를 계산하여 보니 장로 1명, 안수집사 6명, 권사 8명이 피택 되어서, 1·2차 선거 종합 결과 장로 2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18명 이렇게 총 39명이 최종 피택 되셨고 이 분들은 5/29(토)부터 진행된 피택자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성실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며, 언제나 교회의 모든 굵은일에 두 팔 걷고 투입되시는 2019년 임직자분들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등록일 이틀 차이로 투표권이 없으셨던 성도님께서 손 소독제 1,000개를 쾌척해주셔서 선물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설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최고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거 제도가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서 다독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저도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목사 / 선거관리위원회

영화로 성경 읽기

예수님 부활의 원리 되새겨주는 영화, <미나리>

도시 한 복판에서 바다가 그리운 사람은 소라 껍데기를 집어든다. 무리한 대출을 감내하며 대농장의 꿈을 향해 피땀을 쥐어짜는 아버지 제이콥이 있다. 그는 장모님이 심어놓은 미나리를 캐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리라 다짐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캐낸 미나리를 일일이 받아드는 어린 아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잠자리에서 남몰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질적인 심장병으로 함부로 뛰지도 못하는 손자에게, “스트롱, 스트롱 보이!”라고 할머니는 양 주먹을 치켜들며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할머니표 한국식 액센트는 데이비드의 허약한 심장에 즉효약이었을 것이다.

“이번 생(生)은 틀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잡초 미나리는 어떤 공명을 전달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예사로 시비를 건다. 꿈과 현실의 상충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력감은 다방면으로 고착된 지 오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면서, 삶은 왜 이렇게 시련의 연속인가.

<미나리>에서 제이콥에게 품삯을 받는 풀은 순한 성격으로 중보와 묵상을 일상에서 실천한다. 그러나 주인공 제이콥과 관객에게 풀은 우스꽝스럽고 무능한 광신도이다.

아내 모니카는 파산을 향하여 행진하는 듯한 제이콥을 믿고 인내하며, 교회 출석으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곳의 미국인 교우들은 이상야릇한 예의로 이들 가족을 대한다. 영화 속 제이콥 가족의 딱한 형편이 끝도 없이 이어져 가여운 마음이 들 때 쯤, 할머니는 데이비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나리를 소개한다.

“미나리는 얼마나 좋은건데.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Minari is truly the best. It grows anywhere, like weeds. So anyone can pick and eat it. Rich or poor, anyone can enjoy it and be healthy.)”

미나리의 강인한 생명력은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미나리는 한 포기 풀이지만, 맨땅에 갇다놓아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꺾어도 꺾어도 죽지 않고, 왕성하게 번식하며 뻗어오른다.

강인한 생명력만으로는 부활하지 못한다

강인한 생명력은 먹이 사슬로 구성된 생태계의 기본 원리일 것이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전 국민이 미나리의 강인한 생명력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역세고 질긴 의지만으로 삶이 나아지던가? 역척스러운 의지의 이면에는 위험한 늪이 있다. 삶이 고독하고 험난할수록,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뿐이라는 함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미나리>의 제이콥은 모든 일을 홀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해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는 제이콥에게 풀의 진심 어린 중보, 근심을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아내 모니카의 노력조차 제이콥에게는 모두 마뜩치 않을 뿐이다. 몇몇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제이콥은 처절히 노력하지만, 하는 일마다 반복적으로 난관에 봉착한다. 이로 인하여, 제이콥의 가족마저 해체 위기에 처할 정도로, 부부 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그런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어찌 제이콥에게도 별들 날이 없겠는가. 아들 데이비드의 심장병에 많은 호전이 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던 날, 제이콥은 드디어 농작물을 납품할 소매점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각, 제이콥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할머니의 실수로 활활 타오른 큰 불길은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농작물 창고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변변치 못한 가족과 이웃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강 건너 불구경꾼처럼 이 장면을 대한 관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도 제이콥과 똑같은 심정이었다. 전심전력했지만 결과가 허무했던 세월이 창고에 이글대는 불꽃 속에 통째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불길 속에서 제이콥 부부는 공포심에 주저앉지 않는다. 창고의 농작물을 조금이라도 건져내고자 목숨을 바쳐 위험을 무릅쓴다. 또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불길을 헤치며 서로를 극적으로 구조한다. 비극적인 사태로 망연자실한 할머니가 정처없이 길을 떠날 때,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깃든 손주들이 할머니를 붙든다. 인생 최악의 밤이었지만, 이렇게 가족들은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잠을 이룬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남은 것은 가족과 이웃이다. 그러나 멎어버진 가족과 이웃은 아니다. 전 재산인 창고가 전소되어 어제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제이콥이 다시 도전하여 수맥을 찾을 때에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다. 제이콥이 답답해했던 아내, 제이콥이 업신여겼던 풀, 제이콥이 비웃던 수맥지기가 풀과 동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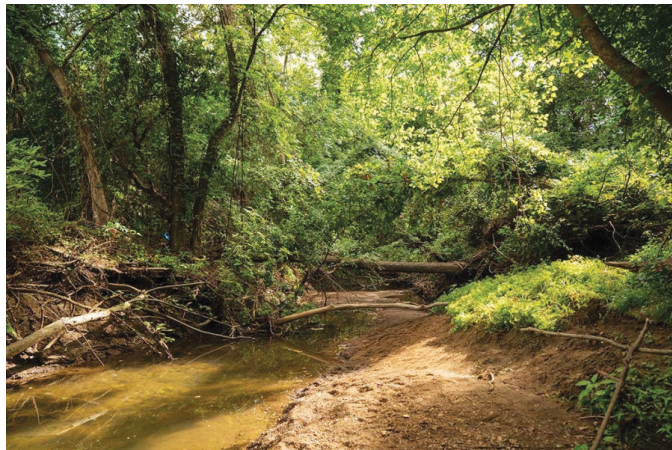
시련을 극복하고 부활하려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기도의 정체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난무한다. 그저 고되기 그지없는 농장 개척을 제이콥이 또 시작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정이 오고가는 가족 못지않은 공동체가 척박한 삶의 비료가 될 것이다. <미나리>의 등장 인물들은 할머니를 비롯하여, 별 볼 일 없다. 솔직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이

콥의 삶이 바닥을 칠 때, 그들의 존재가 그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은 독창회일까? 오케스트라일까? 그렇게 단순히 비유할 수 없을 것 같다. 완전한 예수님이셨지만, 부활을 이루실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독불장군으로 살지 않으셨듯이, 삶은, 다 함께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가는 겸허한 과정일 것이다.

할머니의 미나리 찬가를 들으며, 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양 극단에 미나리와 독버섯이 있다고 생각했다. 천신만고 끝에 죽음도 불사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탑재했다면,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나의 부활은 남량 특집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생의 부활이 될 수도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하는 미나리처럼 우리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여 다 함께 살고 있는가. 요즘은 누구나 성경 속 빛과 소금의 비유를 즐겨쓴다. 인간이라면 유능함과 공명심 모두 지녀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미나리>의 제이콥도 어린 아들 데이비드에게 은근히 힘주어 말한다.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거야. (You and I should try to be useful.)”

제이콥처럼 우리도 사생결단의 의지로 버틸 때가 있다. 낯설은 환경 속에서 토네이도 같은 시련과 갈등을 겪으며, 삶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 그 때 부활의 예수님은, 쓸모없는 수컷 병아리를 태워 죽이는 병아리 감별소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불에 타 죽지 않으려 발악하는 수컷 병아리처럼 삶을 대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같다. 선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공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원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최혜선 성도



청소년소식

순팡이츠, 찾아가는 ‘순식탁’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순식탁’ 풍경

평범한 주일 아침이라면, 온수통에 물을 채우고 후원받은 먹거리를 진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을 텐데, 당연시 여겼던 그 일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왔던 경쾌한 발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탁에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들은 부정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한 일상의 변화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 서로에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면예배가 중단되었고, 작은 소모임을 비롯하여 모든 만남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고립된 일상 속에서 우울, 불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는 특별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여러 다양한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갑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극과 갈등을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해가며, 나와 타인과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들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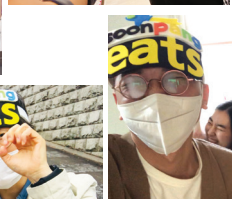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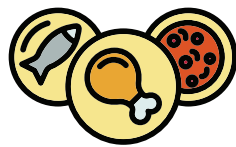
청소년 사역 = 찾아가는 만남 = 예수님의 삶

‘순식탁’은 예수님의 식탁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 공동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행위는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함께 먹는 이들이 하나 되는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은 ‘먹는 사역’입니다. 현대의 식탁을 통해, 경쟁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네 삶과 마음에 평등과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차오르도록 우리는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순식탁’은 아이들을 초대하여, 순식탁을 찾아오는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아이들이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끝나지 않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주중의 모든 교회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온 ‘배달 서비스’!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청소년들 가족들 곁으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순식탁 ‘순팡이츠’로 아이들과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따뜻한 채움, 흩어진 교회를 찾아가는 순팡이츠

‘순팡이츠’는 배달서비스 전문 회사인 ‘쿠팡이츠’에서 이름을 착안하였습니다. 순팡이츠는 청소년들 가족들이 VIP 앱(또는 선생님과 교역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통해 사연을 접수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아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3월23일, 첫 배달을 시작으로 29명의 아이들과 8명의 교사들을 찾아가 방문하였고 현재도 계속 신청 사연이 앱을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실동, 방이동, 송파동, 분당, 남양주, 평창동 등 아이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배달 서비스를 받고, 앱에 사진과 리뷰를 올립니다.



예수님 본받아 흠어진 교회를 찾아가는 순팡이츠는
청소년숲 가족들이 사연을 접수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아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리뷰 중 일부입니다.

- “남양주까지 와 주셔서 감동했어요 ㅠㅠ 떡볶이도 맛있게 먹었고요 ^^” (중1)
- “아이들이 일 년 넘게 교회를 가지 못해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멀리 남양주까지 찾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자랑하기도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1 엄마)
- “딱 12시40분에 오셔서 감동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튀김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순팡이츠!” (중1)
- “김밥 한 줄 한 줄 정성껏 포장해주시고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밥 10줄 모두 쉼어하우스 식구들과 맛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순팡이츠는 정말 사랑입니다. 순팡이츠 대박하세요.” (고등부 전도사)
- “최고! 어우 서비스가 아주 그냥~ 끝내줘요. 강추합니다! ^^” (중2)
- “친구들끼리!!!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커피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전도사님 ㅠㅠ.” (중1)
- “순팡이츠 짱이에요! 잘 먹을게요!” (고1)
- “음료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괜찮다면 또 신청하고 싶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2)
- “문을 딱 열었는데 하이텐션으로 맞이해주는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음식부터 서비스까지 최고입니당!” (중2)
- “전도사님께서 주신 아이스크림이라 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당!” (고2)
- “정말 그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신청하세요!” (중2)
- “조금 늦게 나왔는데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모구모구(음료)만 신청했는데 과자랑 젤리까지! 센스 있는 전도사님 감사드려요. 친구도 엄청 좋아했어요. 순팡이츠 사랑해요!”
- “건너편에서 순팡이츠 보고 유튜브한테 인터뷰 당하는 줄 알았다고 전화왔어요^^ 감사합니다. 전 별점 5,000개요!” (고3)
- “시간 딱 맞춰서 와주시고 양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혼자 해먹어야 했는데 순팡이츠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전도사님도 만나고 친구하고 맛있는 점심 먹었어요. 순팡이츠 최고!” (중3)
- “목사님~~~ ○○○ 엄마 ○○○ 집사입니다. 오늘 심방 다녀가신 사진 보구 땀터졌어요 ㅋㅋㅋ”
- “평창동까지 그 먼 길을 비도 오는 금요일에 오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애써주시는 모습이 늘 은혜가 되어요. 교회를 못 가서 아쉽지만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수고에 큰 위로와 기쁨 주시기를요! ○○이가 성장해서도 잊지않고 기억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교회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줄 믿어요!” (고3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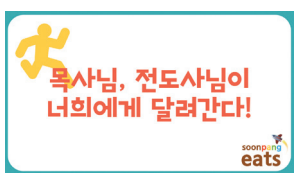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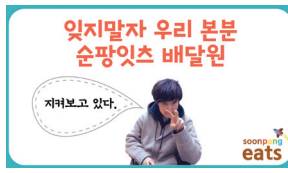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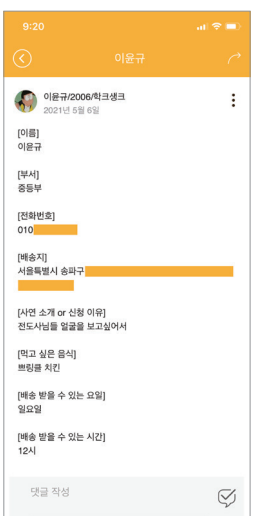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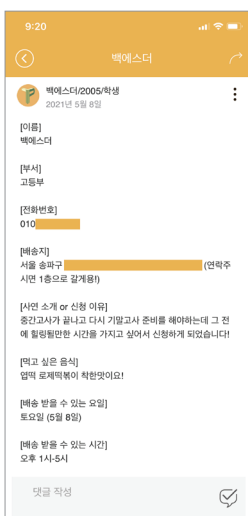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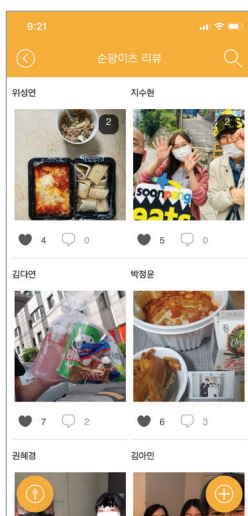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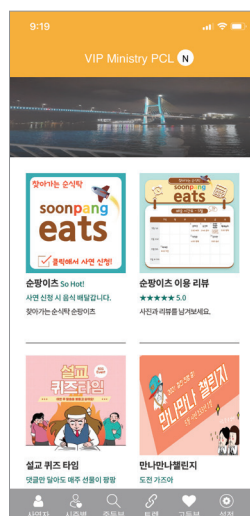
우리의 만남을 채운 사랑과 감동, 감사와 기쁨, 웃음과 행복, 응원과 격려는,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찬 나눔이며 선물입니다. 찾아간 우리를 기쁨으로 환대해주고, 작은 정성에도 큰 감사로 응답해주고, ‘보고싶었다’먼저 말을 건네주는 아이들을 통해 찾아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더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흠

진 교회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지지해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숲 가족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팡이츠 평점을 말씀드립니다.

★★★★★ 언제나 별 다섯 개,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팡이츠, 찾아가는 순식탁의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임경순 목사



청년숲 소식 | 청년숲 3년 프로젝트
'아는 청년', '사는 청년', '나는 청년'

청년숲, 성경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 교회 130여 년 역사 속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이름의 예배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성도들이 앉아야 하는 좌석을 표시하고 전체 좌석의 몇%만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배와 성경공부 등 대면 모임은 줄

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 영성훈련을 통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신앙의 기본확립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주님의교회 청년숲은 ‘아는 청년’, ‘사는 청년’, ‘나는 청년’이라는 3년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 아는 청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오직 예수로 사는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_ 엡 4:13

2022 사는 청년

지식과 믿음의 균형으로 세상 속에 오직 예수로 사는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_ 요 6:69

2023 나는 청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오직 예수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_ 요일 4:16

주님의교회 청년숲은 2021년을 ‘아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는 청년의 일환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성경통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숲의 성경통독은 상반기(3/3~7/6)와 하반기(8/4~11~23)로 나누어져 있으며, 날마다 일정한 분량인 5장의 성경을 읽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통독을 진행하는 청년들에게 각 권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님의교회 청년숲> 유튜브에 청년숲 교역자들의 개관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유튜브 실시간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성경통독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성경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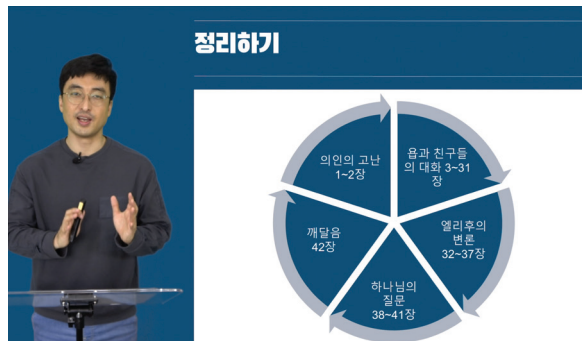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성경통독은 올해 모두가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며 말씀이 청년들의 삶의 큰 위로가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끊임없이 맞닥뜨릴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타파해 나가라고 전해주시는 놀라운 칼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식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중희 목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	1월 1-2장	1월 3-4장	1월 5-6장	1월 7-8장	1월 9-10장	1월 11-12장
2월	2월 1-2장	2월 3-4장	2월 5-6장	2월 7-8장	2월 9-10장	2월 11-12장
3월	3월 1-2장	3월 3-4장	3월 5-6장	3월 7-8장	3월 9-10장	3월 11-12장
4월	4월 1-2장	4월 3-4장	4월 5-6장	4월 7-8장	4월 9-10장	4월 11-12장
5월	5월 1-2장	5월 3-4장	5월 5-6장	5월 7-8장	5월 9-10장	5월 11-12장
6월	6월 1-2장	6월 3-4장	6월 5-6장	6월 7-8장	6월 9-10장	6월 11-12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	1월 1-2장	1월 3-4장	1월 5-6장	1월 7-8장	1월 9-10장	1월 11-12장
2월	2월 1-2장	2월 3-4장	2월 5-6장	2월 7-8장	2월 9-10장	2월 11-12장
3월	3월 1-2장	3월 3-4장	3월 5-6장	3월 7-8장	3월 9-10장	3월 11-12장
4월	4월 1-2장	4월 3-4장	4월 5-6장	4월 7-8장	4월 9-10장	4월 11-12장
5월	5월 1-2장	5월 3-4장	5월 5-6장	5월 7-8장	5월 9-10장	5월 11-12장
6월	6월 1-2장	6월 3-4장	6월 5-6장	6월 7-8장	6월 9-10장	6월 11-12장



에스라의 시대적 배경

EZRA

역대하 36장 22절~23절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임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의 배경

1 아하수에로 통치기간

‘아는 청년’, ‘사는 청년’, ‘나는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21년은 ‘아는 청년’의 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야심차게 성경통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소감

공동체에서 함께 통독을 하면서 함께 읽어가게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매일의 통독이 밀릴 때에는 수요일마다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읽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권마다 교역자분들의 개관 영상을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읽으니 혼자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독의 고비가 되는 부분인 레위기와 민수기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느끼며 읽어가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통독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올해 1독 성공하길 소망합니다.

박수빈 자매

매 신년 계획으로 성경 통독을 다짐했었지만 지키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함께 하는 자제들이 있어 지금까지 무사히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숲 교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성경 개관 영상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수현 자매

2021년 “아는 청년”이라는 주제와 함께 시작한 성경통독. 매주 교역자분들이 올려주는 성경개관 영상은 성경말씀을 보다 꼭꼭 씹어 읽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통독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읽고 나아가는 청년들, 공동체를 떠올리게 해 더 은혜가 깊습니다. 함께 성경일독이라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김반석 형제

이번 성경통독을 통해서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교역자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성경과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 형제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끝까지 읽지 못해 다시 통독을 다짐하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청년숲 교역자분들께서 매주 개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무작정 1독하던 것과 달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를 받아서 말씀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읽고 자넵니다.

이은혜 자매

매년 시도했지만 매년 실패한 1년 통독이었습니다. 올해는 청년숲 전체가 다 같이 도전하고, 다 같이 같은 진도를 나간다는게 힘이 되고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하루의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다음날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됐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말씀과 함께 시작해서 좋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안윤주 자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통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주중에도 결심이 해이해질 즈음이면 교역자님들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읽는 날, 수요일이 돌아옵니다. 책을 하나씩 끝내거나 시작할 때에는 개관영상을 통해 그 배경과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갑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같이 읽고 있는 청년들이나 교역자님들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던 통독이지만 함께 하니 수월하고 재밌습니다.

박진실 자매



목회 칼럼

거룩한 오지랖

코로나19 시대, 나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다른 이를 향한 ‘거룩한 오지랖’ 이 더욱 넓어지는
우리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너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웃웃이나 윗도리에 입는 겹옷의 앞자락을 말하는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의 상황에 자신의 마음과 신경을 쓰는 것, 좀 더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그것이 지나쳐서 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지랖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신의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를 가리켜 ‘제 코가 석 자’라고 합니다.

이 ‘제 코가 석 자’라는 말과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특히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잘(?)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내 코가 석 자여서 나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의 때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오지랖’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을 보면 오지랖 넓은 요셉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보는 요셉.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은 누군가를 걱정하고 관심을 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상인들에게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가정총무가 되었으나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오게 된 억울한 상황입니다. 함께 옥살이는 하는 관원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억울함과 좌절의 상황. 한마디로 요셉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지랖이 참 넓습니다.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꿈해석)을 해결해 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마14:14).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홀로 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눅7:1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를 볼 때 ‘불쌍히 여겨’라는 말로 나타납니다(눅10:33).

탕자의 비유에서도 온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눅15:20).



각 본문의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의 헬라어 원어는 σπλαγχνίζομαι(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단장(斷腸)의 아픔인 ‘애간장이 녹는다’, ‘애끓는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지만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하실 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녹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말하는 코로나19의 시대.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더욱 커진 지금의 상황입니다. 원래도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빠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기에 누군가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오지랖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몸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눈길도 주지 않는 세태가 정말로 큰 어려움입니다. 말 그대로 제 코가 석 자인 때입니다.

이러한 단절과 분리, 개인주의의 시대이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감히 ‘거룩한 오지랖’으로 표현해 봅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였지만 다른 이의 안색을 살피는 요셉의 마음. 모든 순간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마음.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표정을 살피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는,
내가 속한 겨자씨원의 안부를 궁금해 하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전쟁의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다른 이를 향한 ‘거룩한 오지랖’ 이 더욱 넓어지는 우리 주님의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구민 목사

2020년 공동의회
항존직 피택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헌신 결심한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항존직 선거는 예년의 경우, 보통 가을에 이루어지고 소정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이듬해 창립기념주일에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항존직 선거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연기되었고, 지난 5월 16일, 23일의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피택된 분들에게는 아마도 주님의 특별한 뜻이 더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피택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될 피택자를 격려와 함께 소개합니다. (가나다순) 함글함글

■ 장로 (2명)



변춘석



임익수

■ 안수집사 (19명)



고승철



김관민



류승태



박경준A



박용좌



박재민



박창두



서병운



손준웅



송재승



여인모



윤승진



이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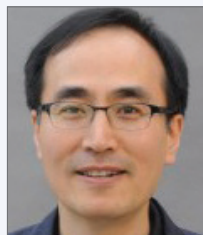
이성호



이정우B



이정혁



조상철



조세종



한종수

■ 권사 (18명)



강경희B



강정임



고명숙



권진영



김미선D



김미성B



김숙자F



김영희I



방혜령



서재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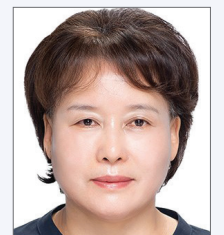
육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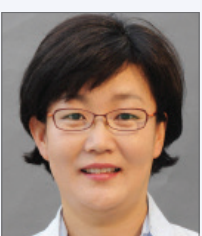
이금옥



이민숙B



이왕희



이춘희A



임미희



조은영



한신혜

유아세례예식 진행



5월 30일 3부 예배에서 유아세례예식이 진행되어 20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를 받은 유아들은 다음과 같다.

강현오, 고연아, 권예진, 김다인, 도혜리, 박시온, 박지훈, 오정혁, 유지안, 이다은, 이동희, 이성아, 임규민, 전서후, 정이안, 조재이, 하운, 한태민, 현서희, 현지은

공동체 소식

주님의교회 좋은 이웃 되기 ‘피로 회복’ 헌혈 캠페인



주님의교회에서는 5월 30일 코로나19로 피로한 세상을 피로 섬겨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좋은 이웃 되기 ‘피로 회복’헌혈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에 주님의교회 성도 총 49명이 신청했으며, 교회 본당 앞에 주차한 헌혈버스에서 검사한 결과 그중 헌혈 적격자는 33명으로 판명되어 헌혈을 통해서 혈액 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사역에 참여했다. 헌혈한 성도에게는 여선교회에서 지원한 호두과자를 선물로 증정했다.

한시영 목사

모십니다

재택의 시대, 정말 가치 있는 재택 사역!

홍보출판부에서는 <함글함글>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출판물을 만듭니다. 저희는 교회 역사의 소중한 자료인 <함글함글>을 홈페이지에 창간호부터 수록하는 일과 함께, 모든 기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검색을 통해 찾고 싶은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함글함글>의 PDF 이미지를 메일로 받으신 후 데스크에서 워드 파일로 전환해서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재택의 시대, 재택으로 가능하며 틈틈히 주님의교회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 이 소중한 사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함글함글 디지털화 사역 지원”제목과 함께 연락처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홍보출판부

교회 일정

- 6/13 (주일) 정기당회
- 6/20 (주일) 통일선교주일
- 6/27 (주일) 창립기념주일

알립니다

1. 수요일예배 시리즈 설교 안내

일정 : 6/9, 16, 30(총3회) 오후 7:20, 대예배실
주제 : 나의 사랑하는 책
강사 : 박주영 목사

2. 새벽기도회 봉사자 모집

대상 : 주님의교회 성도
문의 및 신청 : 김복수 안수집사(010.3034.0123)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